

양천구, 다자녀 가구 양육비 지원 확대

산후조리경비 최대 150만원... 신청 기한도 연장 아이사랑택시 운영사 일회화... 1인당 年 10만원

서울 양천구가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구는 산후조리 경비 지원을 자녀 수에 따라 최대 150만원까지 늘리고, 영아 동반 이동을 위한 택시 이용 지원도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먼저 기존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출생아 1인당 동일하게 지

급되던 방식에서 벗어나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원으로 개편됐다. 이에 따라 첫째아는 100만원, 둘째아는 120만원, 셋째아 이상은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한도 확대됐다. 출산 후 60일 이내였던 신청 기한을 180일 이내로 늘려 신청 기회를 넓혔으며, 올해 1월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지원금은 산모 본인 명의 카드에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을 비롯해 의약품이나 건강식품 구매, 한약 조제, 산후 운동, 심리상담 등 산후 회복에 필요한 다양한 항목에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출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말일까지다.

영아를 동반한 외출 편의도 함께 개선된다. '양천아이사랑택시(서울엄마이택시)' 사업은 24개월 이하 영아 양육 가정을 대상으로 카시트와 공기청정기 등을 갖춘 대형택시 이용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병원 방문이나 외출시 보다 안전한 이동을 돕는 데 목적이 있다.

구는 올해부터 운영사를 타사로 일임하며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으로 신청부터 호출, 결제까지 가능하도록 했으며, 신청도 상시 접수로 전환해 접근성을 높였다. 이용 기한은 승인일 기준 1년으로 확대했고, 통행료 등 준비비용 결제도 가능해졌다.

지원 대상은 양천구에 주민등록을 둔 24개월 이하 영아 양육 가정으로, 영아 1인당 연간 10만원의 택시 이용 포인트가 지급된다.

박소진 기자 zini@siminilbo.co.kr



‘찾아가는 악물안전 케어’ 협약
서울 양천구가 최근 구성 5층 회의실에서 양천구약사회와 ‘찾아가는 악물안전 케어서비스’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진은 협약식에서 (왼쪽 여섯 번째부터)허태재 구청장, 권현태, 어윤정 양천구약사회장 및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하는 모습.

성동구, 퇴원환자 통합돌봄 원스톱 지원

보건·의료·복지 서비스 유기적 연계 체계 구축 홈케어·민간 돌봄 포함... 맞춤형 식단 도시락도

서울 성동구가 퇴원 이후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한 통합 지원에 나선다.

구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에 대상으로 '퇴원환자 의료·요양 통합돌봄 연계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로 퇴원 이후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을 반영해 마련됐다. 가족의 돌봄이 어려운 환자나 큰 환자를 대상으로 보건·의료·복지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지역사회 안에서 인종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는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병원과 구성, 민간 복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신청 절차도 간소화했다. 협력 병원에서 상담을 신청하면 구청으로 바로 연계되는 방식으로, 환자가 여러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였다.

퇴원을 앞둔 환자가 병원에서 상담을 요청하면 병원 담당자가 돌봄 필요 대상자를 구청에 의뢰하고, 이후 구청 담당자가 건강 상태와 주거 환경, 돌봄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퇴원 시점에 맞춰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한다.

지원 서비스는 방문 간호와 진료, 가사 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 공공서비스를 포함해 케어와 생활 지원 등 민간 돌봄서비스도 포함된다. 식사가 어려운 환자에게는 맞춤형 식단 도시락을 제공하고, 가사나 간병이 필요한 경우엔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지원한다.

또한 외래 진료가 어려운 환자를 위한 병원 동행 서비스와 함께, 낙상 위험이 있는 가구에겐 안전 요양시트에 문턱 제거 등 주거환경 개선도 지원한다.

박소진 기자 zini@siminilbo.co.kr

아산시, 퇴원환자에 맞춤형 통합돌봄

재가노인복지센터와 협약 최대 2년간 서비스 제공

충남 아산시는 재가노인복지센터와 재가노인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최근 체결했다.

재가노인복지사업은 장기입원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의료·돌봄·식사·이동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복지사업으로, 2024년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장기입원자 중 의료적 필요도가 낮아 퇴원이 가능한 의료급여 수급자로, 기본 지원 기간은 1년이며 필요시 최대 1년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하다.

이번 협약에 따라 재가노인복지센터는 돌봄 서비스를 담당하며, 대상자를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체활동 지원 및 가사 활동 지원 등 지역사회 지원에

필요한 필수 돌봄서비스를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사업에 적극 참여해 주신 협력기관에 감사드리며, 의료급여 퇴원자가 집에서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통합 서비스를 구축해 재가노인복지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선비 기자 pms@siminilbo.co.kr

간추린 뉴스

동대문문화재단, '영화제작 체험' 이벤트로 제공

서울 동대문문화재단 답십리영화미디어센터(이하 센터)는 어린이 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답십리 필름을 타고~!'를 운영한다.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2026 서울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저차구 협력형' 사업으로, 답십리 힐링소 지역 영화 제작 거점을 통시대적으로 활용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다.

'답십리 필름을 타고~!'는 만 10세부터 12세 어린이(2014~2016년생) 20명을 대상으로 하며, 오는 6월20일~10월17일 총 13회차에 걸쳐 운영된다.

교육은 센터 2층 OT실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참여자들은 상상, 연기, 촬영, 편집에 이르는 영화 제작 전 과정을 직접 경험하게 된다. 모집은 오는 12일부터 지역내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센터 누리집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인천 연수구, 장애인 이동보조기기 세척서비스

인천 연수구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역 장애인에 패적하고 장애인 보조기기 사용을 위해 '이동보조기기 세척서비스'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서비스는 인천광역시 보조기기센터, 인천직접지원센터와 연계해 평소 직접 세척이 어려운 정동·수동 휠체어, 정동 스쿠터, 장애인 유모차 등의 이동보조기기 세척과 소독을 지원한다.

세척서비스는 오는 29일 인천직접지원센터에서 진행하며, 구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중 이동보조기기 세척이 필요한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모집 기간은 15일까지로,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 재활보조기에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센터 관계자는 "이동보조기기는 일상생활과 이동에 꼭 필요한 장비인 만큼 정기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며 "이번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들이 청결하고 편리하게 보조기기를 사용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선민 기자 mcs@siminilbo.co.kr



이웃사랑 배기 탁
경기 의정부시 송산동 주민센터가 최근 유행성 소제 행행항우리고회로부터 지역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배기 40리(10kg 단입)를 기부 받았다. 사진은 기획실에서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하는 모습.

예비고교생 '여름방학 수학캠프' 무료 운영

영등포구, 7월27일부터 7일간 맞춤형 집중 지도 서울대 학생 1:1멘토링 제공... 참가자 35명 모집

서울 영등포구는 2027학년도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예비 고등학생들이 여름방학 기간 수학 기초 실력을 체계적으로 다질 수 있도록 '수학캠프'를 운영하고, 오는 28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수학캠프는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수학 전 과정을 핵심 중심으로 압축해 7일 동안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지난해 예비 고등학생 50명을 대상으로 처음 운영된 수학캠프는 참여 학생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올해는 운영 시기를

여름방학으로 조정해 중학 과정 마무리와 고교 진학 준비에 모두 도움이 되도록 했다.

캠프는 오는 7월27일부터 8월2일까지 하이라이프호텔(경인시 200)에서 진행되며, 7일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집중 학습이 이뤄진다.

모집 인원은 구에 거주하는 2027학년도 입학 예정 고등학생 35명으로, 참가비는 전액 무료다.

교육 과정은 핵심 개념 정리와 유형별 문제 풀이를 주제로 운영된다. 캠프 시작 전 레벨 테스트를 통해 개인별 학습 수준을 진단

한다고, 결과에 따라 맞춤형 학습 지도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캠프 기간 중에는 서울대학교 학생과의 1:1 멘토링 프로그램도 운영해 학습 방법과 진로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고, 서울대 캠퍼스 탐방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해 학습 동기를 높일 계획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은 오는 28일까지 온라인(네이버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구는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쳐 최종 참가자를 선발하며, 결과는 구청 누리집 게시와 함께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 '우리아구소식' 게시란 또는 미래교육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인천 계양국제어학관, 여름학기 내달 개강 초·중학생 20단계 커리큘럼 운영

수강생 모집... 13일 레벨테스트 영어·일어 회화도 성인 강좌도

인천 계양국제어학관이 올해 여름학기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수강료는 월·수·금반(32회) 36만원, 화·목반(23회)은 25만 8750원이다.

수강 기간은 오는 6월1일부터 8월26일까지이며, 초·중등학생과 성인을 대상으로 수준별 외국어 교육을 제공한다.

재학생 재등록은 이달 7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되며, 신규 등록 희망자는 13일 오후 3시에 시행되는 레벨테스트 응시 후 선착순으로 등록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초·중등학생을 위한 정규 프로그램은 기초 파닉스부터 최상위 과정인 'Alphago'까지 총 20단계의 커리큘럼으로 구성된다.

영어인간과 내국인 강사의 교차 수업을 통해 영어 내역(읽기·듣기·말하기·쓰기)의 균형

잡힌 성장을 도우며, 학기별로 영어 문과 체력 수업도 병행한다.

특히 '컬처월드 일글리시(영어이슈)'와 '영어와AI' 강좌는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되며 수강료는 2만2천원이다.

성인 대상으로는 영어·일본어·스페인어 회화 강좌가 운영된다. 레벨테스트를 통해 수준별 맞춤이 결정되며, 주 1회 2시간 수업(11회) 수강료는 13만7500원이다.

인천·문선식 기자 mcs@siminilbo.co.kr

1인가구 동아리 여가활동 지원

성남시, 장·노년층 회원 모집

경기 성남시는 오는 11일까지 1인 가구 중장년·시니어층을 위한 동아리 회원 19명을 추가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50~75세의 참여 확대를 요청한 기존 회원들의 건의를 반영해 추진된다.

모집 분야는 ▲기억재깅과 인지향상 ▲심플한 시화집(詩花集) 제작 ▲역사문화 탐방 ▲특수서비스를 통한 그림 이해와 표현 ▲랜드마크 커피 등 5다.

동아리별 정원은 8명으로 총 40명이 참여하며, 이번 추가 모집을 통해 회원 인원을 충원한다.

시는 각 동아리에 오는 11월 말까지 멘토링, 교재비, 문화 체험 관람회·일자리 등 총 7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한다.

동아리별 지원 대상은 50대 이상 퇴직자, 이별·사망·전문의가 멘토로 참여해 활동을 돕는다. 신청 대상은 성남시에 거주하거나 지역내 직장인에 다니는 50~75세 1인 가구다.

성남·오영석 기자 ows@siminilbo.co.kr

구리시, 노인 폐렴구균 접종률 도내 1위

'예방접종 유공' 도시사 표창 대상포진 접종 만족도 100%

경기 구리시는 경기도 '예방접종 유공'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경기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고 6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영유아부터 고령층까지 전 연령대를 아우르는 시민의 '생애주기별 예방방역 전략'이 인정받은 결과다.

앞서 시는 체계적인 접종 안내와 관리로 시민 건강권 확보에 힘썼다. 개별 접종 안내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2025년 기준

영유아 완전 접종률 92.7%를 달성했으며, 2026년 1월에는 노인 폐렴구균 접종률 도내 1위를 기록하는 등 예방접종 관련 역량을 입증했다.

또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사업을 추진해 접종비 부담을 낮췄다. 해당 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100%로, 필요성에 대한 긍정 응답은 99%로 집계돼 높은 시민 체감도를 확인했다.

시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에 더욱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초·중학생 '효도업서' 체험학습

강동구, 이달 9개 학교서 운영

서울 강동구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부모님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효도업서 보내기' 체험학습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또 올해 지역내 8개 학교가 참여한 가운데 효도업서 3977장을 제작해 각 학교에 배부했다. 참여 학교는 학생들에게 효도업서 쓰기 용성을 보여주며 올바른 부모 소극 방법을 교육하고, 학생들이 업서에 도로명부를 직접 쓰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해당 업서는 우체국을 통해 각 가정으로 발송된다.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도봉구, '도봉이랑 팡팡' 어린이날축제 큰 호응

서울 도봉구는 최근 도봉구청 앞 마들로 일대에서 어린이날 축제 '도봉이랑 팡팡'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행사장에는 회전그네, 회전빙기, 미니바이킹, 메가바인리 등 놀이기구와 에어바운스가 마련돼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졌다.

행사는 고대사와 함께하는 캐릭터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무대에서는 캐릭터 공연을 비롯해 합창, 태권도 시범, 저글링, 마술, 버블 공연 등이 펼쳐졌다.

경합·소방관 체험, 페이스페인팅, 복고놀이, 폭풍체험 등 40여 개 체험 부스도 운영했다. 아이들은 가족과 함께 부스를 둘러보며 만들기 체험과 놀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일부 공간에는 지역생선과 연계한 먹거리 부스와 힐링존, 파라글라이딩 등 휴식공간도 운영했다.

스, 인형극 등이 잇따라 무대에 올랐으며, 체험 마당에서는 ▲에어바운스 및 전방놀이 ▲연기소화기 및 소화기 체험 ▲인상 팔찌 및 마타유리 투명자 만들기 등 20여가지 이상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돼 큰 인기를 끌었다. 또한 골목과 가래떡 나눔 행사도 진행해 훈훈한 정을 나눴다.

이와 더불어 백재문화체육관광관 및 어린이백재체험관에서 운영한 '어린이 문화 주간(2~5일)' 역시 약 2400여명의 방문객이 찾으며 인산인해를 이뤘다.

특히 4일부터 5일까지 열린 '백재 꼬마 잔치'는 '꼬마 예술가의 창작소'라는 슬로건 아래 오감 만족 체험으로 눈길을 끌었다.

오산시, 어린이날 '이동 마음건강' 홍보부스 운영

경기 오산시는 지난 9일 어린이날을 맞아 시청 광장에서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 마음건강 캠페인 '마음이 보내는 일일' 체험형 홍보부스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오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오산경찰서, 아동지원협의회가 함께 참여한 민·관 합동 캠페인으로, 아동의 마음을 확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아동학대 예방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마당에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아동의 정서적 변화와 학대 징후를 '마음이 보내는 신호'를 표기에 발견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했으며, 아동학대 신고 방법과 공격적 양육관육 확신을 위한 홍보물품도 함께 제공했다.

특히 어린이날을 맞아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은 현장에서 캠페인을 펼쳐 아동보호의 중요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했다.

이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청양군, 어린이날 큰잔치등 문화주간행사 성료

충남 청양군이 제104회 어린이날을 맞아 개최한 '2026 청양 어린이날 큰잔치'와 '백재 꼬마 잔치'를 포함한 어린이 문화주간 행사가 가족 단위 관람객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지난 9일 청양고등학교 일원에서는 청양어린이날 행사추진 위원회가 주관한 '2026 청양 어린이날 큰잔치'가 펼쳐졌다.

이번 행사는 가족참여형 축제를 지향하며 민·관·학 협력을 통해 준비돼 약 1000여명의 아동과 가족들이 함께했다. 공연 마당에서는 대북공연, 한국무용, 치어리딩, K-POP 댄

스, 인형극 등이 잇따라 무대에 올랐으며, 체험 마당에서는 ▲에어바운스 및 전방놀이 ▲연기소화기 및 소화기 체험 ▲인상 팔찌 및 마타유리 투명자 만들기 등 20여가지 이상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돼 큰 인기를 끌었다. 또한 골목과 가래떡 나눔 행사도 진행해 훈훈한 정을 나눴다.

이와 더불어 백재문화체육관광관 및 어린이백재체험관에서 운영한 '어린이 문화 주간(2~5일)' 역시 약 2400여명의 방문객이 찾으며 인산인해를 이뤘다.

특히 4일부터 5일까지 열린 '백재 꼬마 잔치'는 '꼬마 예술가의 창작소'라는 슬로건 아래 오감 만족 체험으로 눈길을 끌었다.

이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